



カチの声

第4号
2003年7月

翻訳を語る (4)

二人三脚

辻 仁成

フランクフルトのブックフェアで、私の作品「白仏」(はくぶつ)がフランスの編集者の目に止まったのは、今から2年前くらい前のこと。フランス語版の「白仏」(Le Bouddha Blanc)は発売の翌々日に、フランス三大文学賞の一つフェミナ賞(Prix Femina Award)の外国部門賞にノミネートされた。丁度宣伝のために来仏していた私を驚かせたのは、その賞が百年も歴史のある賞で、受賞者の中にはロマン・ロラン(Romain Rolland)やサン＝テグジュペリ(Saint-Exupéry)のような大変有名な作家が名を連ねていることであった。

パリに着いてすぐ、私はル・モンド紙(Le Monde)の片隅に自分の名前を見つけることになる。編集者のマリ・ピエールは、はじめてフランスで出版された作家の本がノミネートされることは非常に稀なことだと、喜んでくれた。インドやオランダの大作家の名が私の名とともに並んでおり、正直、最初は何かの間違いだろう、とまともにほうけとめ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それがその2か月後まさかの受賞となり、再びフランスへ向かう飛行機に乗ることになるとは、その時はまだ夢にも思っていなかった。

空港で私を待っていたのが、翻訳家のコリーヌ・アトラン(Corinne Atlan)であった。自分の小説は外国で数冊が既に翻訳されていたが、翻訳者と会うのは初めてのことである。コリーヌは三十代半ばのアジア的雰囲気を持った女性で、さらに言えば非常に奥ゆかしく、どこか昔の日本女性を思わせる物静かな人であった。だからか、最初からとても気があい、無理せずに向かい合うことができた。

受賞の一つの理由には、当然翻訳がすばらしかったことがあげられるだろう。彼女は私の文体を出来る限り忠実にフランス語に訳すことに神経を使った、と言ってくれた。日本の人気作家の多くの作品を手がける彼女だったが、「白仏」には特別な思い入れがあったようだ。実際彼女の前のご主人もモンゴルの人であった。日本で暮らしていた時期も短期間だがあり、アジア的な思想のバックボーンもしっかりと持っていた。「白仏」の独特の死生観というものは、或いは彼女でなければ表現でき

目次

翻訳を語る (4)

辻仁成 P.1

散歩の賜物 (3)

南千住、墓場で歴史を歩く... P.4

日本語上達のために (2)

懐具合 P.7

日本人の目・韓国人の目

特集：座談会 P.8

日本の方言 (2)

博多弁 P.11

日本語名文鑑賞 (2)

方丈記 P.11

データから見える

日本の横顔 (4)

親しい友人とのつきあい P.12

なかったかもしれない。そういう意味で、もしもコリーヌ以外の人が翻訳していたら、あの作品が受賞することはなかっただろう。それくらい、翻訳家の力は大きかったといえる。

現在、「白仏」はヨーロッパをはじめいくつかの国から翻訳化の誘いを受けている。実際にトルコなど既に契約を終え、出版を待っている国もある。どういう翻訳家と出会うかで、あの作品の運命も決まるのだな、と思うと、思わず祈りたくもなる。自分の子供のような作品だけに、すばらしい人とめぐり合ってほしいと思うのは当然のことであろう。

コリーヌ・アトランは5月発売予定*の「海峡の光」の翻訳を既にほぼ終えている。私と彼女はメールを使って、内容に関してのいくつかのやり取りをした。この作品は「白仏」の前の作品で、日本では芥川賞を頂いたもの。函館の少年刑務所の中での物語だが、コリーヌは当然函館のことを知らない。「砂州の上に出来た街」とはということか、と質問がメールされてきて、私は思わず苦笑した。砂州を説明するのは言葉ではむずかしく、仕方がないので私は絵を描いてそれを送り返した。箱庭的な宇宙を表現したかったので、砂州をうまく説明してもらわなければ、物語の世界観が伝わらないからだ。「白仏」よりももっと翻訳が難しい、と彼女は言ったが、確かにあの小説は私の作品の中でも非常に難解な部類に入るものであり、ロールプレイングゲームのような隠された意図を持っていた。その意図に関しては私は受賞後も口を固く閉ざしてきたし、インタビューなどでも明かしたことはない。今回、きちんと彼女に説明しておいた方がいいと感じたのは、彼女もまたフランスの読者に対して作者の片割れとなるからなのである。コリーヌ・アトランとは、今後も多くの作品を共同で世に送り出していきたい。日本語的に言えば、つまり「二人三脚」ということになる。

* 2001年5月16日、Mercure de France社から出版された。
Japanese Book News 第33号(2001年春発行)より転載

번역을 말한다 (4)

... 이만삼각(二人三脚)

辻 仁成(츠지 히토나리)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북페어에서 나의 작품 「白仏」에 프랑스 편집자의 시선이 멈춘 것은 지금으로부터 2년 여전의 일. 프랑스어판 「白仏」(Le Bouddha Blanc)은 발매 다음 다음날에 프랑스 3대 문학상 중의 하나인 페미나상(Prix Femina Award)의 외국부문상 후보로 올랐다. 마침 이 책의 홍보를 위해 프랑스를 방문하고 있던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그 상이 백년이나 긴 역사를 가진 상으로, 수상자 중에는 로맹·롤랑(Romain Rolland)과 생텍쥐페리(Saint-Exupéry)와 같은 대작가가 연명(連名)되어 있는 점이었다.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르몽드지의 한 귀퉁이에서 내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게 되었다. 편집자인 마리 피에르씨는 처음으로 프랑스에서 출판된 작가의 책이 후보로 오른 것은 아주 드문 일이라며 기뻐했다. 인도와 네덜란드의 대작가의 이름이 내 이름과 함께 나란히 올라 있어, 솔직히 처음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겠지라며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랬던 것이 2개월 후에 설마하니 수상을 하고, 또 다시 프랑스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리라고는 그 때 당시에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다.

공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번역가 코린느·아트랑(Corinne Atlan)이었다. 내 책이 외국에서 이미 여러 권 번역되었지만, 역자와 만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코린느는 삼십대 중반의 아시아 풍의 분위기를 갖고 있는 여성으로, 더 보태어 말하면, 깊이가 있어 보이고 어딘가 옛 일본여성을 생각나게 하는 차분한 사람이었다. 그래서인지 처음부터 아주 마음이 잘 맞아 무리 없이 마칠 수 있었다.

수상 이유중의 하나로 의당 번역이 아주 잘 됐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내 문체를 최대한 충실히 프랑스어로 옮기는 일에 신경을 썼다고 했다. 다수의 일본 인기 작가의 작품을 손수 다루는 그녀였지만, 「白仏」은 특별히 마음에 두고 있었던 듯하다. 실제 그녀의 전남편도 몽골 사람이었다. 일본에

執筆紹介

辻 仁成 (ツジ, ヒトナリ)
小説家; ミュージシャン; 映画監督
※音楽・映画の分野では
「辻仁成 (ツジ, ジンセイ)」

1959年10月 4日生
北海道函館市出身
成城大学中退



職歴・経歴

1981年エコーズを結成。82年CBSソニーのSDオーディションで優秀アーティストに選ばれ、以後ライブハウス等を中心に活動。85年4月アルバム「Welcome To The Lost Child Club」とシングル「Bad Morning」でデビュー。グループ内ではギターとボーカルの他に作詞作曲も手掛ける。音楽活動の他オールナイトニッポンのDJをつとめ、「Lost Child Club」という新聞を出したり、詩の朗読会を開くなど多彩に活躍。89年処女小説「ピアノシモ」ですばる文学賞を受賞。同年エコーズを解散、ソロ活動を始める。92年同人誌「ガギュー」を創刊。95年「天使のわけまえ」で映画初監督。96年作家専業を宣言。97年「海峡の光」で第116回芥川賞を受賞。同年小説「OPEN HOUSE」が南果歩主演で映画化される。98年2月ソニー・ミュージック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が発足させた新レーベル、パッサジオDISCSのゼネラルプロデューサーとなる。同時に自身のシングル「この頃 (T Y O M i X)」を発売。同年映画「千年旅人」では原作、脚本、監督、音楽を一手に引き受ける。99年自身が男の視点から、江国香織が女の視点からひとつの恋を描いた共作恋愛小説「冷静と情熱のあいだ Blu」を刊行。同年「白仏」のフランス語翻訳本「ル・ブッダ・ブラン」で日本人として初のフェミナ賞を受賞。2000年「愛をください」で初めて連続ドラマの脚本を手掛ける。同年監督3作目となる映画「ほとけ」を製作、2001年アジア映画祭最優秀イメージ賞、ドーヴィル映画祭グランプリ(最優秀イメージ賞)を受賞。同年第51回ベルリン国際映画祭パノラマ部門に正式招待される。同年元エコーズの伊藤浩樹とともにエコーズ・オブ・ユースを結成、シングル「恋するために生まれた」をリリース。他の著書に「クラウディ」「ニュートンの林檎」「母なる風と父なる時化」「愛と永遠の青い空」、エッセイ集に「ガラスの天井」、江国香織との共著「恋するために生まれた」、監督作品に「フィラメント」など。95年女優の南果歩と結婚するが、2000年離婚。2002年女優の中山美穂と再婚。最新刊は2003年6月発行の「99歳まで生きたあかんぼう」(集英社)。

韓国語に翻訳された作品

* 当センター文化情報室で7月中旬より貸出可能。
「海峡の光」해협의 빛 고려원 1999. 6.
「冷静と情熱のあいだ- Blu」
냉정과 열정사이(BLU) 소담출판사 2000.11.
「嫉妬の香り」질투의 향기 산성미디어 2000. 12.
「五女夏音」다섯번째 딸 가는 복소리 2002.10.

체재했던 시기도 단기간이었지만 있었고, 아시아적인 사상의 확고한 신념도 있었다. 「白仏」특유의 사생관(死生觀)은 어쩌면 그녀가 아니고서는 그려낼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 코린느 이외의 사람이 번역을 하였다더라면 그 작품은 수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정도로 번역가의 힘은 컸다고 할 수 있다.

현재 「白仏」은 유럽을 비롯한 몇몇 나라로부터 번역본 권유를 받은 상태다. 실제로 터키 등, 이미 계약을 마치고 출판을 기다리고 있는 나라도 있다. 어떤 번역가를 만나느냐로 그 작품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구나 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자, 절로 빌고 싶어진다. 자신의 자식과도 같은 작품인 만큼, 뛰어난 번역가와 만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코린느·아트랑은 2001년 5월 발매 예정인 「海峡の光 (해협의 빛)」의 번역을 이미 거의 끝낸 상태다. 나와 그녀는 내용에 관한 몇몇의 확인사항을 메일로 주고 받았다. 이 작품은 「白仏」이 나오기 전의 작품으로 일본에서는 아쿠다가와상을 받은 것. 하코칸의 소년형무소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코린느가 하코칸이 어떤 곳인지 알 리가 없었다. 「사주(砂州) 위에 생긴 거리」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메일로 들어와서, 나는 무심결에 쓴웃음을 지었다. 사주를 말로 설명하기란 어려운 일이므로, 그림을 그려 보냈다. 가상의 우주를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사주의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야기의 세계관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녀는 「白仏」보다 번역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분명 그 소설은 내 작품 중에서도 난해한 부류에 들어가는 것이었고, 롤플레이(역할) 게임처럼 숨은 의도를 갖고 있었다. 나는 그 의도에 관해서 수상 후에도 입을 굳게 닫고 있었고, 인터뷰 등에서도 명확하게 밝힌 적은 없다. 이 번에 확실하게 그녀에게 설명해 두는 것이 좋겠다고 느낀 이유는, 그녀 또한 프랑스 독자에게 있어선 작가중의 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코린느·아트랑과는 앞으로도 많은 작품을 공동으로 세상에 내고 싶다. 일본어적인 표현을 쓰자면, 이른바 「이인삼각(二人三脚)」작업이 되는 것이다.

散歩の賜物 (3)

南千住、墓場で歴史を歩く

今、日本は夏を迎えているが、夏といえば怪談。暑い季節だからこそ恐い話で寒さを感じるのが夏の風物詩なのだ。たいていの怪談は、恨みを残して死んだ人間が幽霊となってこの世に現れ、生き残った者に復讐する、というのがパターン。実際にも、政敵を滅ぼした後でそのタタリを恐れ、死んだ敵を神様としてまつという伝統が日本の歴史にはある。したがって、非業の死を遂げた者をどう供養するかがけっこう大事な歴史問題になってくる。逆にいうと、死者の視点から歴史を見直すのも十分に意義がある行為といえるだろう。

というわけで、今回は死者が眠る場所、つまり墓場を歩いてみた。他人のお墓を見て回りながら、ちゃっかり歴史を勉強しよう、という一見ふざけているようで実は大まじめな企画なのだ。場所は東京・南千住^{みなみせんじゆ}界限。いわゆる下町に属するが、人気スポットではないので、この町までわざわざ散歩にくる人はあまりいない(ぼくのような変わり者をのぞいて)。それでも、ここには日本人にすらあまり知られていない隠れた名所旧蹟(?)が実にひっそりと奥ゆかしく3カ所ほどある。それほど広くない地域に集中しているので、一気に歩き回ることになろう。それでは、怒涛の歴史墓場めぐりへ出発!

まずJR南千住駅を降りると、そこはかつての死



刑場の跡地。門を抜けると、妙に巨大な仏像があるのは刑死者を弔うためらしい。その名も首切地蔵。昼間だからいいようなものの、ひと気がなく、時折り後ろを走る電車の轟音が鳴り響くと不気味なことこの上ない。ひんやり背筋が寒くなる。

ここからすぐ近くにあるのが一番目の墓場——小塚原回向院^{つかはら かいこういん}。この中には、江戸幕府時代の反体制派の有名人たちが眠る墓がある。彼らは幕府の弾圧を受けて死刑になった政治犯たちだ。

산책의 산물 (3)

미나미 센쥬. 묘지에서 역사를 읽는다

지금 일본은 여름을 맞이하고 있다. 여름이라고 하면 괴담. 더운 계절엔 역시 공포 이야기로 오싹하게 만드는 것이 여름의 풍물시인 것이다. 대부분의 괴담은 한을 남기고 죽은 인간의 혼령이 현세에 나타나, 살아 남은 자들에게 복수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 실제로 정적(政敵)을 제거한 후, 그 뒤 탈을 염려하여 적을 신으로 모신다는 전통이 일본 역사상에도 존재한다. 따라서 비명의 최후를 맞이한 자를 어떻게 공양할 것인가는 상당히 중요한 역사문제로 대두된다. 역으로 말하면, 죽은 자의 시점에서 역사를 직시하는 것도 충분히 의의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자(死者)가 잠들어 있는 곳, 즉 묘지를 거닐어 보았다. 타인의 묘를 돌아 보며 빈틈없이 역사를 배워보려는, 일견 농처럼 보이면서 실은 아주 진지한 기획이다. 장소는 도쿄·미나미 센쥬 부근. 소위 시타마치(서민도시)에 속하는데, 인기 장소는 아니므로 여기까지 일부러 산책을 나오는 사람은 많지 않다(필자와 같은 이상한 사람을 제외하곤). 그러나 여기에는 일본인에게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 난 고적(?)이 실로 쥐 죽은 듯이 웅성깊게 3군데 정도 있다. 그다지 넓지 않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니 단걸음에 돌아보도록 하자. 그럼 이제부터 노도의 역사묘지 순례 출발!!

먼저 JR미나미센쥬역을 내리자, 거기엔 일찍이 사형터. 문을 빠져 나오자 묘하게 거대한 불상이 있는 것은 아마도 형을 받아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한 것인 듯. 그 이름도 참수지장보살. 낮 시간 대여서 관찰을 듯한데도 인기척도 없고, 이따금 뒤를 달리는 전철의 굉음이 울려 퍼지길라도 하면 그 이상의 섬뜩함은 없다. 등골이 오싹해진다.

여기서 바로 근처에 있는 것이 첫 번째 묘지——고즈카하라에고인. 이 안에는 에도막부시대의 반체제파로 유명했던 인사들이 잠든 묘가 있다.

그들은 막부의 탄압으로 사형을 받은 정치범들이다. 19세기 일본의 역사는, 막부와 영주에 의하여 지배되었던 정치체제 말기에 여러 정치세력이 서로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윽고 메이지 유신과 함께 근대국가로 탄생을 하게 되는데, 대략을

19世紀の日本の歴史は、幕藩体制の末期にいろいろな政治勢力が複雑に絡まりあいながら進行し、やがて明治維新を迎えて近代国家の誕生となるのだが、大まかにいうと、その過程では幕府を守ろうとする勢力と幕府を倒そうとする勢力とが激しく主導権を取り合ったのである。話がややこしくなるといけないので、仮に前者の勢力を「幕府派」、後者の勢力を「維新派」と呼ぶことにしよう。そうすると、この回向院は主に幕府派によって弾圧された維新派の埋葬場ということになる。

寺の奥に進むと、狭い敷地にたくさんの墓が密集していて、まるで迷路のよう。維新派の墓は一カ所に集められているらしいのだが、ぼくにはどれが誰の墓なのかよくわからなかった。墓石はもう大分古くなっているとはいえ、それなりにきれいに掃除されている。

時代は下るが、この墓地には2・26事件(1936年に起きた近代日本最大のクーデタ)の首謀者の一人の墓がある。その事件は未遂に終わり、決起した青年将校らは昭和維新を目指しつつも、結局、反逆者として処刑された。彼もまた志を遂げられずに死んだ人間の一人といえよう。事件の数年後に死去した夫人とともに眠るその墓には小さな花が手向けられていた。

その次に向かったのが円通寺。この寺は結構広く、



高々と空にそびえる金ぴかの観音像が目印。境内に入ると、古くて真っ黒の門がある。これは、維新派との戦争に完敗した幕府派が立てこもっていたある寺の門。よく見る

と弾痕があちこちに残っていてなまなましい。そしてこの門のうしろに続くのが幕府派の人々の墓だ。戦場に累々と死骸が放置されていたのをこの寺に埋葬したとのこと。いまは柵に囲まれて中に入ることはできないが、少しでもよく見ようと近づいてみると、どこからともなくカラスが数羽舞い降りてきてしきりにカーカー鳴く。鋭いくちばしが気味悪く、結局ほんのちょっと柵の内側を覗き込んだだけで大急ぎで退散した。黒い鳥は黒い門の墓地を守っているのだろうか。

最初の墓場が維新派、今度のが幕府派。両者は互いに天下国家に命をかけて激しく争い、その結果が二つの墓場なのか・・・そんなことを思いながらやってきたのが三番目の墓場、浄閑寺。小さな山門をくぐり奥へ行く。ここも墓が密集しているが、中ほどになにやら高い塔がある。新吉原総霊塔というらしい。新吉原とは日本で最もよく知られた遊郭で、浄閑寺の南方にあった。遊郭の周囲に堀が設けられていたのは、そこで働く女性(遊女)たちの逃亡を防止するためという。その遊女たちの霊を慰めるた

이야기 하면, 그 과정에서 막부를 지키려는 세력과 막부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격렬하게 주도권 싸움을 벌였다. 이야기가 복잡해지면 줄지 않으므로, 전자의 세력을 「막부파」, 후자의 세력을 「유신파」로 부르기로 하자. 따라서 이 에고인은 주로 막부파의 탄압을 받은 유신파의 매장지가 된다.

절 깊숙이 들어가자, 협소한 부지에 많은 묘가 밀집해 있어, 마치 미로처럼 보였다. 유신파의 묘는 한 장소에 모아 놓은 듯했는데, 필자에게는 어느 것이 누구의 묘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이미 묘비는 어지간한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런대로 깨끗이 청소되어 있었다.

시대는 바뀌어 후대로 내려가는데, 이 묘지에는 2·26사건(1936년에 일어난 근대 일본 최대의 쿠데타)의 주모자 한 사람의 묘가 있다. 이 사건은 미수로 끝나 버리고, 쫓기던 청년 장교들은 쇼와유신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결국, 반역자로 몰려 처형당한다. 그들 또한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죽은 이들 중 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 후, 수년이 지나 세상을 떠난 부인과 함께 잠들어 있는 그 묘에는 작은 꽃이 꽃혀 있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엔츠지. 이 절은 꽤 넓고, 드높은 하늘을 향해 솟아 있는 번쩍이는 금속제 관음상이 안팎. 경내에 들어서면 낡고 새까만 문이 있다. 이것은 유신파와의 전쟁에서 완패했던 막부가 굳게 버티며 저항했던 어느 절의 문. 자세히 살펴 보면 여기저기에 탄흔이 남아 있어 생생하게 다가온다. 그리고 이 문 뒤로 이어지는 것이 막부파 사람들의 묘다. 전장에 겹겹이 방치되어 있던 시체를 이 절에 이장해 놓은 것이라고 한다. 지금은 울타리를 쳐서 들어갈 수 없지만, 애써서 자세히 보고자 다가서서 보면 어디선가 까마귀 여러 마리가 내려와서는 까악 까악 운다. 날카로운 부리에 나도 모르게 언짢아져 결국 잠깐 울타리의 내측을 들여다 보았을 뿐, 서둘러 물러났다. 검은 새는 검은 문의 묘지를 지키고 있는 것일까?

제일 처음의 묘지가 유신파, 이 번의 것이 막부파. 양자는 서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격렬하게 싸워, 그 결과의 산물이 이 두 개의 묘지란 말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며 도착한 곳이 세 번째 묘지, 조칸지. 작은 문을 허리를 굽혀 빠져 나와 깊숙이 들어 갔다. 여기에도 묘가 밀집되어 있는데, 중간 지점에 뭔가 높은 탑이 있다. 신요시와라소레토인 듯

めの塔なのだ。特に19世紀半ばの大地震ではたくさんの遊女が死に、ここに投げ込み同然に葬られた(この寺は別名「投込寺」とも呼ばれる)。「生まれては苦界、死しては浄閑寺」という川柳が有名だ。

ところで、この慰霊塔の目の前には、生前よくここを訪ねた永井荷風^{ながいかふう}という作家の詩碑がある。詩の冒頭を紹介すると、「今の世のわかき人々／われにな問いそ今の世と／また来る時代の芸術を。／われは明治の兒ならずや。」少し古い日本語なので現代語訳すると「今の時代の若い人々よ、私に問わないでくれ、今の時代とこれから来る時代の芸術のことを。なぜなら私は消えつつある明治という時代の人間なのだから」とでもなるだろうか(多少誤訳ありだがご勘弁を)。



哀れな遊女たちの運命を前にして、作家の詩情が照らし出す明治という時代のイメージは、幕府派か維新派かという単純な歴史認識からぼくたちの想像力を解放してくれる。三番目の墓場には、一番目と二番目のような(たとえ悲劇であろうとも)歴史の表舞台で活躍した英雄たちの物語からこぼれ落ちた「もう一つの歴史」があるのではなかろうか。

——と同時に、三つの墓場の死者たちには、立場のちがいを越えて無念の死を遂げたという共通点がある。だが、いま無念の死と述べたが、これらの死者に関しては、幽霊となって現世の人間に復讐したという話は聞いたことがない。彼ら彼女らの恨みが浅いとは思えないのだが、死後は丁重に供養されたと満足してくれたのだろうか。あるいは、ひょっとしたら、いちいち幽霊になって化けて出るにはキリがないから、その代わりに何か思いもよらない別の方法で(たとえば歴史そのものに対して)すでに復讐し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クワバラ、クワバラ(これは古いおまじないの言葉)。

以上、所要時間は一時間弱。観光地でもないのに、手にはペンとメモ帳を持ち、首からはカメラをぶら下げて、なにやら一心不乱に墓場を見て回る、そんなぼくの姿のほうが地下に眠る死者たちよりもずっと浮世離れしていたかもしれませんね。

(フリーランスライター 星野政美^{ほしの まさみ})

하다. 신요시와라란 일본에서 가장 잘 알려진 유곽으로 조칸지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유곽 주위에 해자를 둘러 판 것은 그 곳에서 일하는 여성(遊女)들의 도망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 유녀들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한 탑인 것이다. 특히, 19 세기 중엽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수많은 유녀가 죽었으며, 이 해자에 몸을 던져 매장된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이 절은 「投込寺」라고도 불린다). 「살아서는 창녀, 죽어서는 조칸지」라는 센류(5·7·5 의 3 구 17 음의 단시)가 유명하다.

그런데 이 위령탑의 바로 앞에는 생전에 이곳을 자주 찾았던 나가이카후라는 작가의 시가 새겨진 비(碑)가 있다. 시의 모두를 소개하면, 「今の世のわかき人々・われにな問いそ今の世と／また来る時代の芸術を。／われは明治の兒ならずや。」 다소 오래된 일본어이므로 현대어로 풀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여! 묻지 마라 다오. 이 시대와 앞으로 다가 올 시대의 예술을. 왜냐하면 나는 사라져 가고 있는 메이지 시대의 인간이니까」 정도가 될까(다소 오역이 보이나, 용서를 구함). 가련한 유녀들의 운명을 대했을 때, 작가의 시정이 비춰주는 메이지라는 시대의 이미지가 막부파인가 유신파인가 라는 단순한 역사인식에서부터 우리들의 상상력을 해방시켜 준다. 세 번째 묘지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와 같은(비록 비극일지라도) 역사의 표면에 나서서 활약한 영웅들의 이야기에서 누락된 「또 하나의 역사」가 있는 것은 아닐까?

--- 그리고 동시에 이들 세 묘지에 묻힌 사자들에게는 입장의 차이를 뛰어 넘어 무명의 죽음을 이뤘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지금 무명의 죽음이라고 기술했지만, 이들 사자들이 유령이 되어 현세의 인간에게 복수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 그들과 그녀들의 원한이 뿌리깊지 않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사후의 정성을 다한 공양에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어쩌면 일일이 유령으로 변하여 나타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그 대신에 뭔가 상상조차 불가능한 색다른 방법으로(가령, 역사 그 자체를 상대로) 이미 복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 구와바라, 구와바라(일본의 옛 주문).

이상, 소요시간은 1 시간 여, 관광지가 아님에도 손에는 펜과 메모장, 목에는 카메라를 걸고, 일심불란으로 묘지를 돌아 보는, 그런 필자 쪽이 지하에 잠들어 있는 사자들보다도 훨씬 더 멀리 속세를 벗어나 있을지도 모른다.

【카치】

日本語上達のために (2) 懐具合

先日、日本から知り合いがやってきてデパートでショッピングをしていたときに聞いたせりふです。

「韓国も不景気だって聞いたけど、混んでるね。庶民の^{ふところ}懐具合は日本よりよさそうだなあ。日本のデパートは閑古鳥が鳴いてるよ。」

その後、韓国の景気も悪いのに何だか庶民の購買意欲は韓国のほうが上のような話から、日韓の金銭感覚にまで話は盛り上がりました。

今回はそのときの会話をヒントにお金にまつわる言葉の話をしようと思います。

知り合いのせりふに出てきた「懐具合」という言葉を、みなさんは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か。まず、懐とは着物の胸のところを指すことばです。着物を着る時には左側を上にして胸から下の部分を重ねて帯を締めます。そうすると、左胸の部分にちょうど右手を差し込めるくらいの空間ができます。そこを懐と呼び、昔は財布やハンカチを入れたりしたことから、懐具合は財布の具合、つまり、持っているお金を指す言葉になったのです。懐具合が悪いときには「懐がさびしい」と言いますし、反対に財政状況がよいときには「懐があたたかい」と言います。

さて、日韓金銭感覚をめぐるお話をちょっと。皆さんは「懐がさびしいときに人の懐を当てにする」ことがありますか。要するに、あまりお金がないときに他人のお財布を頼って、ごちそうしてもらったりすることがあるかということです。個人差はありますが、たいていの韓国人には、ごちそうしたり、何かプレゼントを贈ったり、お金を借りたりすることが気軽にできる友達がいるようです。

一方、同じ質問を日本人にすると、ちょっと慎重な答えが返ってきます。「金を貸せば友を失う」という言葉があるように、日本ではお互いの懐具合に踏み込んだつきあいというのを避ける傾向があるようです。それは、懐という言葉が人の内面的なものをも指すことからもうかがえます。たとえば、人の心の中を読み取ることを「懐を見透かす」と言ったり、心が広く包容力があることを「懐が深い」と言ったりします。

また、会社での昇進祝いなどの際に、同僚や友達にごちそうするのも日本とは違うところです。わたしは以前、自分の誕生日に友達が集まってくれて喜んでいたら、食事のお勘定も誕生日の人がするものだを知り、カルチャーショックを受けたことがあります。それでも、懐があたたかい時には気前よく分かち合う感覚はいいものですね。中には大盤振る舞いしすぎて、懐が痛いというような場合もあるようです。

こんな風に韓国の人のお金の使い方を見ていると、「大盤振る舞い」だとか「太っ腹」なんていう言葉が頭に浮かびます。「大盤振る舞い」は本来は「椀飯振る舞い」と書きます。人に気前よく、食事や金品を提供し、盛大にもてなすことをいうのですが、鎌倉時代以後の武士社会でごちそうが並ぶ宴会を椀飯（おうばん）と呼んだことが由来だそうです。「太っ腹」は細かいことにこだわらず、度量が大きい人に使われますが、気前がよくて、けちけちな金銭感覚にもよく使われます。

さて、皆さんはどんなタイプでしょうか。韓国人でも懐具合にかかわらず倹約家という人もいますし、日本人でも懐がさびしくても大盤振る舞いしてしまう太っ腹な人がいるかもしれませんね。

(日本語講座 田端かや)

日本人の目・韓国人の目 (4) 特別企画

座談会「W杯から1年—あのとき見たこと、今見えること」

W杯から1年。あのときに目にしたことから見える日本のこと、韓国のこと、日本人・韓国人のことを話してもらいました。参加者はW杯を韓国で経験した韓国人と日本人、日本で経験した日本人と韓国人という4人です。

一番印象に残っていること

コ・ヒョングク (以下、コ) : 応援の熱気です。前はそれほどでもなかったけど、今度は本当に3歳の子供から70、80のお婆さんまで。韓国人の特徴っていうか、みんなすぐ盛り上がる場所もあるんですけど、今度の応援は印象に残りました。



コ・ヒョングクさん:
延世大学1年。W杯当時は安東にある高校の3年生。

井口みのり (以下、井口) : 赤いTシャツを着てる人がすごく多かったことと、あの「テーハンミングッ」という手拍子がずっと聞こえてた

というのが印象に残ってます。街がすごくうるさくて、何か騒ぎでもあったのかと思いました。

——— イさんと高木さんは日本でしたね。

イ・サンミ (以下、イ) : テレビを見て不思議だと思ったのは、毎日「ベッカム」で、どこの店に行ったとかいろいろやってるのに、日本の選手にはスポット当てなくて。ブームを作ろうとしたのかもしれないけど。学食とか行くと、男の子が、ほんとに似合わないのにみんなベッカム・ヘアしてるんです。自国のことを応援するのが私の中でのW杯だったんですけど、日本ではどうして外国の選手を応援してるんだろうと。

高木清子 (以下、高木) : 会社にテレビのあるところがあるんですけど、あんなに熱くなってる日本人見たのは初めてです。街の中ではもっとすごかったです。歩道が人であふれてて、すれ違う人が全然見たこともない人なのにハイタッチなんかして。

——— 日本人は熱くならない?

高木 : サッカー好きな人が盛り上がるのはわかるんですけど、いつも並んで普通にパソコン打ってる人が、こんなワーっとか言って盛り上がるとは思わなかった。

イ : 日本はあまり盛り上がってなかったと思います。学生の中には興味ないっていう人も結構いましたし。韓国では全国的に関心あ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日本はやっぱ若い人、30代ぐらいまでとか。街にも旗とかあまり無くて。

——— 韓国ではどうでしたか。

コ : 最初は韓国戦以外は興味なかったんです。受験生だったから勉強しなきゃいけないかったし。でも、友達からイングランドとどここの試合見たか、とか聞かれて見てないって言うと、なんだお前、W杯なのになんて言われて、興味を持たないといけないうっていうぐらい。

井口 : 人の盛り上がりよりも、よく道ばたでTシャツ売ってたっていうの思い出しました。W杯期間中であっても、日本だと道でTシャツなんか売っているのは少ないわけで、やっぱり韓国っぽいと思いました。

イ : 確かに日本は駅の前とか新宿とかでは売ってましたけど、韓国のように普通の町や道ばたでは売ってなかったですね。



イ・サンミさん: 高麗大学3年。W杯当時日本の中央大学に留学中。

——— 日本で見た韓国の印象はどうでしたか。

イ : 今まで見たことのないことが韓国で起きていることにすごくびっくりしたし、またそこにいない自分がすごく残念だと思いました。あんなに人がいっぱい、バスの上に若い人たちが上がってるのを見て、楽しそうだななんて。やっぱり日本でどんなに応援していても新大久保(イさんが応援したところ)の世界だし、その規模とかは韓国のとではぜんぜん違うものでした。

高木 : テレビで見る限りでは、韓国がすごく赤かったから熱くなりやすいという印象はありました。

ベッカム「さま」?

——— 先ほどの、印象に残ったことに出てきた「ベッカム」問題ですが。

イ：日本の選手も盛り上げようとしたら格好いい人いっぱいいるのに…。もちろん日本って自国でW杯開催して自国を応援するっていうこともあっただろうけど、なんかスタープレーヤーにスポットライトを当てた。で、こんなにすごいプレーをやるんだからみんなで見ましようよという感じじゃなかったのかな。また、ベッカムは中でもファッションとかやっぱりスター性というのがあったから盛り上がったのかな。

イ：やっぱり私は日本の選手とかも好きだったし、日本のチームのことをもっと詳しく知りたかったんですが、いつもベッカム、ベッカムって。で、一番理解できなかったポイントはなんでベッカム「さま」なのかっていうことでした。本当に疑問に思いました。

——— その「さま」が付いてしまうことを日本人の二人はどう思いますか。



井口みのりさん：W杯当時から漢陽大学国際語学院在学中。

井口：なんか変だなとは思いますが、面白くするために付けてるんだと思います。

高木：でも本当にそういう人たちが好きな女の人は本気で「さま」って付けてます。

——— 日本人にとってそういう盛り上げ方はあまり違和感はないですか。

高木：違和感はないですが、個人的にはそんなに言わなくてもって。

井口：なんかやってるなって感じですね。でも個人的にはちょっとやりすぎかと思います。

——— 日本でそういうことは他にもよくありますか。

高木：タマちゃんとか、サッチーとか。

日本人・韓国人のイメージ
「アイドル志向」と「集まる傾向」

——— 去年目にしたことは、前から持っていた日本と韓国のイメージと重なっていましたか。

コ：これ、やばいんじゃないのっていうぐらい盛り上がっていましたが、でもそれは韓国人ばいなど私は考えました。

高木：日本もまたW杯があれば盛り上がると思いますが、終わったら元の生活に戻ったというか、何ともなかったように。韓国みたいに熱くなることはないと思います。



高木清美さん：漢陽大学国際語学院在学中。W杯当時は東京の会社勤めのOL。

——— あまり盛り上がる感じはなかった日本人。W杯後はどんな印象でしたか。

イ：大学のゼミでW杯が終わったあとの感想について皆で話し合ったんですが、その時、大会の初めの時は日本人の友達も韓国チームを応援してくれてたんですけど、韓国が勝ち進んでベスト4まで入った時は悔しいっていう気持ちがあったという日本の友達がいて、やはりこういうこと考えるんだなと。韓国人は日本チームが勝ち進んだら悔しいと簡単に言えると思いますが、日本人ってあまりストレートには話さないだろうと思ってたのでちょっとびっくりしました。

高木：私はもともと韓国のこと好きだから悔しいって気持ちは湧かなかったです。

井口：私も悔しいっていう気持ちは起こらなかったです。なぜそこで悔しいと思わなくちゃいけないのかそれがよく分からないです。でも、もし逆に日本が勝ってたらちょっと怖いかな。石でも投げられるんじゃないかって。「悔しい」は自分には無い感覚だから。

—— W杯から1年経ちましたが、当時不思議に感じたことについて今はどう思いますか。

イ : 日本へ行ってすごく感じたことで、日本の人って、英語をしゃべる人とか白人とかにすごく憧れがある人が、一部分かもしれないですが、結構いて、ベッカム「さま」もそういうのの一種じゃないかと。西洋への憧れ。あと、日本のテレビではどこのチームの誰がイケメンだとか、ベッカムが泊まったホテルの部屋に予約が殺到してるとかそういうのが多かったです。

高木 : タイタニックのデカプリオが来た時もどこの店に行ったとかやってました。

—— アイドル志向のようなものですか。次なるベッカム「さま」がまた現れたりして。

井口 : そういうふうにしなないと一つのことに盛り上がれないのかもしれないですね。韓国人と比べると日本人は他人がやってることに無関心だと思うから。韓国人は人がやることをジューッと見てたり、買い物に行っても私が何か手に取って見てると横から覗き込んできたり。韓国人は、なんか集まる傾向にある。人がやってるんだから何かいいことがあるって思うんでしょうか。

イ : それはありますね。道端でも服屋さんでも人がいっぱいいると興味湧いちゃう。

コ : そういう人は多いと思います。W杯もそうですけど、一緒にしたいっていうか、今やってるから僕もやるみたいな。

高木 : 日本人も行列する店に行ったり、信号待ってる時に一人が上見ると皆が上見たりっていうこともあるんで、人種は関係ないかも。

井口 : 韓国人の場合、さりげなさが無い。人のことに興味を持つとジューッと見つめるから。日本人はチラッと見るけど。

コ : 韓国には他人のことに興味を持つ人が多いと思います。日本で会った人と比べると、韓国人は自分の周りの話をするのが好きなんじゃないかなとも。身近に事件があったら、自分で確認しないとたまらないっていうか。「あのこと知らないの？」って皆言うから、知らないきやいけないのかなって、僕の場合プレッシャーに感じる場合があります。でも、それが好きな人は互いに興味を示すことも楽しいんじゃないかと。

W杯の影響

—— 人々の行動という意味では、社会的にW杯の影響があったと思うことはありますか。

コ : デモが多くなったというのはあります。以前は社会運動に対するイメージがよくなかったんですけど、W杯以来、街中に人が集まるということが認められたような。

イ : 全国的な運動だから。形としても前は暴力的なこともあったりしたけど、今はロウソク持って平和的にやってるから。

コ : 個人的には、ソウルに出てきたっていうことでもあります、社会に参加するようになったかもしれません。

—— 日本では何かありますか。

高木 : …特に、ないですかね。

井口 : 冷めてますね。

—— それぞれ自分の目で見えて感じた率直なところも出てきたか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了>

会場: 国際交流基金ソウル日本文化センターイオンホール
使用言語: 日本語

日本の方言(2) 博多弁

福岡はくさ¹⁾、「アジアの玄関口」で言われとーとよ。こんキャッチフレーズはあまり有名やなかごたるばってん、ほんなこつアジアとの交流の多か元気か²⁾街ばい。福岡・博多で聞いてさ、真っ先いイメージするとは皆がバリ好いとおラーメンと屋台ばい。やっぱラーメンな屋台がいっちゃんうまか。そいで屋台で飲むなあ焼酎つたい。こん風情ば³⁾知らんで博多んこつは語れんとよ。ほんなこつよかとかやけん、じえったい遊びに来んしゃいよ。

方言は日本と日本語の豊かな地方性の象徴と言えます。このコラムでは、さまざまな地方の方言を紹介していきます。

福岡

福岡は「アジアの玄関口」と言われています。このキャッチフレーズはあまり有名ではないようですが、実際にアジアとの交流が盛んな、元気な街です。福岡・博多と聞いて真っ先にイメージするのはみんなが大好きなラーメンと屋台です。やはりラーメンは屋台が一番おいしいです。そして屋台で飲むのは焼酎です。この風情を知らずに博多のことは語れません。本当にいいところですから、ぜひ遊びにきてください。

- 注) 1) 終助詞、間投助詞: 文中の「～ね、」は「～くさ、」になる。文末の「～だよ」は「～ばい」「～たい」。
2) 形容詞: 「～い」「～な」は「～か」になる。また、イ形容詞と同じ活用をする否定の「～ではない」が「～やなか」となる。
3) 助詞の違い: 対格の「を」→「ば」。その他、主格の「が」→「の」、主題の「は」→「な」も顕著。

博多弁へのとびら

◎NHKが「21世紀に残したいふるさと日本のことば」という企画で日本全国の方言を収録しています。ここでネイティブスピーカーの「〇〇弁」を聞くことができます。博多弁は福岡県のページへどうぞ。
URLは<http://www.nhk.or.jp/a-room/kotoba/02fukuoka/02fukuoka.html>です。

日本語名文鑑賞 (2)

行く川の流れは絶えずして、
しかも本^{もと}の水にあらず。
よどみに浮かぶうたかたは、
かつ消えかつ結びて
久しくとゞまることなし。
世の中にある人とすみかと、
またかくの如し。

鴨長明『方丈記』より
この欄の文章は『青空文庫』（<http://www.aozora.gr.jp/>）から選んでい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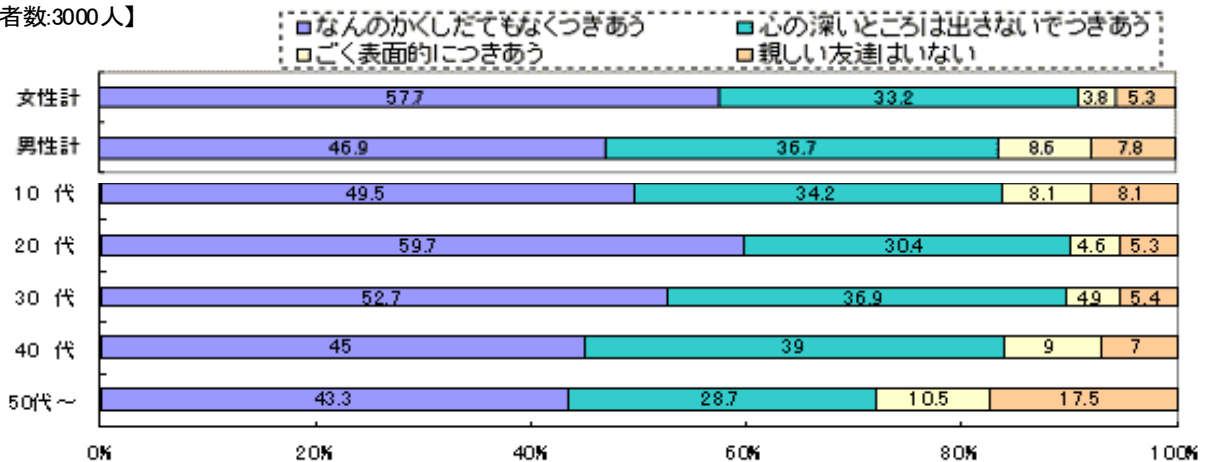
データから見える日本の横顔（４）

一番親しい友人との付き合い方は

「韓国人は友達になったら何でも話ができる。でも、日本人は何でも話すということはないから、友達になった気がしない。」などと聞いたこと、言ったことはないでしょうか。

それが本当かどうかは、個人によって違っているというのが真実だと思いますが、日本人に関するある調査では、下のような結果が出ています。男女差、年代差はありますが、全体では「何でも話す」という人が52.5%です。これは多いのでしょうか、少ないのでしょうか。どう思いますか。

【回答者数:3000人】



情報源：今回参照したのは、株式会社インターマール『メガライブラリー』<http://www.intermarcom.co.jp/mega/>というサイトです。アンケートデータベースというだけあって、この他にも多くの調査結果が参照できます。

第3号「間違いだらけの相談室」解答

- (a)×→もっと (b)○ (c)○ (d)○ (e)○ (f)×→もっと (g)○ (h)×→もうこれ以上
 (i)×→たくさん（「もうたくさん」は何度も嫌なことがあって、それ以上がまんしたくない、がまんできないという意味の表現。） (j)×→もっと (k)○

■ 編集部より

今回は「日本人の目・韓国人の目」の企画を設け大きくページを割きました。W杯から1年。今の時点で既に過去のできごとになってしまったかもしれませんが、開催前後に日韓の人の往来が増え、両国の普通の人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進んだのは確かだと思います。今後このW杯がどのような文脈で引き合いに出されるか分かりませんが、日韓の間に限らず建設的な協調の場で語られることを期待しています。

特集は、また折を見て企画しようと思います。読者の皆様からのご意見・ご感想をお待ちしています。（く）

『カチの声』に対するご感想、ご意見・ご要望等はgomado@jpf.or.krまでお願いいたします。

発行・編集 国際交流基金 ソウル日本文化センター日本語部